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명 숙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국내 학술지 음악교육연구 동향 분석

- 2010년부터 2016년까지 -

2017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박 민 경

국내 학술지 음악교육연구 동향 분석

- 2010년부터 2016년까지 -

김 명 숙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박 민 경

인 준 서

박민경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11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2010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학회 및 대학부설연구소에 등재된 음악교육 학술논문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음악교육 연구의 동향을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5개의 학회 및 2개의 대학부설연구소에 등재되어 있는 학술 논문을 조사하여 음악교육 관련 논문 725편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논문은 문헌연구를 통해 연구대상, 연구영역, 연구방법으로 분류하였다. 연구대상은 20개의 세부영역으로, 연구영역은 14개의 세부영역으로, 연구방법은 5개의 세부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별 분석에서 사람 대상 연구는 교사와 초등학생 관련 연구가 많았고 성인 관련 연구가 가장 적었다. 고령화 사회로 인한 성인의 비율이 매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증가가 요구되어진다. 문헌 대상 연구는 초·중등 교육과정과 중등 교과서 관련 연구가 많았고 고등선택과 예술고 교육과정 관련 연구가 가장 적었다. 초등과 중등 연구에 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의 증가가 요구되어진다. 기타는 그 외 영역과 음악교육학이론 관련 연구가 많았고 교육정책 관련 연구가 가장 적었다. 교육의 목적·내용·방법·조직·경영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교육정책 관련 연구의 증가가 요구되어진다.

둘째, 연구영역에서는 교수-학습방법 영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보아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 그에 비해 음악교육행정에 관한 연구의 분포는 매우 저조하였는데 음악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음악교육행정에 관한 연구의 증가가 요구되어진다.

셋째, 연구방법에서는 조사연구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병행을 통해 단순히 이론적인 연구만이 아닌 그 이론을 활용하여 직접 관찰하고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음악교육 연구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3
3. 연구의 제한점	3
II. 이론적 배경	4
1. 음악교육	4
2. 음악교육연구	5
3. 음악교육연구의 당위성	7
4. 음악교육 관련 학술지	9
5. 선행연구 고찰	14
III. 연구방법	20
1. 연구대상	20
2. 연구기간	21
3. 연구절차	22
4. 연구 분석을 위한 분류기준	22

IV. 연구 분석 및 결과	32
1. 연도별 논문 수	33
2. 연구대상 빈도분석	37
3. 연구영역 빈도분석	44
4. 연구방법 빈도분석	49
5. 결과 요약	52
V. 결론	54

참 고 문 헌

ABSTRACT

표 목 차

<표Ⅱ-1> 음악교육 관련 학술지 목록.....	9
<표Ⅲ-1> 세부적인 학술지 선정 결과.....	21
<표Ⅲ-2> 연구내용 및 연구기간.....	21
<표Ⅲ-3> 연구대상별 분류.....	23
<표Ⅲ-4> 연구영역별 분류.....	27
<표Ⅲ-5> 연구방법별 분류.....	30
<표Ⅳ-1> 음악교육 관련 학술논문 집계.....	32
<표Ⅳ-2> 연도별 논문 수.....	33
<표Ⅳ-3> 연구대상별 분석.....	37
<표Ⅳ-4> 연구대상 연도별 빈도 분석.....	41
<표Ⅳ-5> 연구영역별 분석.....	44
<표Ⅳ-6> 연구영역 연도별 빈도 분석.....	47
<표Ⅳ-7> 연구방법별 분석.....	49
<표Ⅳ-8> 연구방법 연도별 빈도 분석.....	51

그림 목차

<그래프IV-1> 연구대상별 백분율.....	39
<그래프IV-2> 연구영역별 백분율.....	45
<그래프IV-3> 연구방법별 백분율.....	50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는 어떤 일이나 사물을 깊이 생각하고 진리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다. 그 중 과학적인 방법을 활용한 연구는 논리적인 절차와 검증을 통해 높은 가치와 신뢰성을 얻게 된다. 또한, 연구는 과학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 내기도 한다.¹⁾ 많은 학자들의 음악교육 연구는 음악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을 길러줌으로써 더 나은 교육 방법을 형성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준다.²⁾ 따라서 음악 학자들의 음악교육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피는 것은 음악교육 현장의 문제 해결과 음악교육 연구 분야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와 같이 음악교육 연구 동향이 어떠한지 살피고 연구대상, 연구영역, 연구 방법을 활용한 연구물이 학문적 발전과 사회적 과제를 잘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우리나라 음악교육 연구자들의 중요한 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음악교육의 현재 상황과 음악교육 분야의 발전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음악교육 연구의 동향을 연구한 김미숙³⁾, 석문주⁴⁾, 원영실⁵⁾, 박기범⁶⁾, 최진호⁷⁾ 등은 최근 음악교육 연구의 동향 분석에 대한 긍정적인 호

1) 최은식 외(2014). **음악교육 연구방법**. 서울:교육과학사. p.11

2) 석문주(2004). “음악교육의 최근 연구동향을 통한 우리나라 음악교육연구의 새로운 접근”. **음악교육연구**, Vol.27.

3) 김미숙(2001). “JRME(1991년~2000년) 논문 경향에 대한 소고”. **음악교육연구**, Vol.20.

4) 석문주(2004). 전게서

5) 원영실(2006). “한국 음악교육학계의 최근 연구동향 분석”. **국악과 교육**, Vol.24.

6) 박기범(2011). “한국 음악교육 연구의 분석 및 개관: 1980년 이후 국내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예술교육연구**, Vol.9, No.2.

과를 입증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2010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5개의 학회와 2개의 대학부설연구소에 등재된 음악교육 관련 국내 학술논문을 연구대상, 연구영역, 연구방법으로 분류하고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음악교육 연구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음악교육 연구자들에게 최근 음악교육 연구의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7) 최진호(2011). “연구방법론을 통해 본 음악교육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음악교육공학**, Vol.12.

2. 연구문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음악교육 관련 학술논문의 연구대상별 분석 결과는 어떠한가?

둘째, 음악교육 관련 학술논문의 연구영역별 분석 결과는 어떠한가?

셋째, 음악교육 관련 학술논문의 연구방법별 분석 결과는 어떠한가?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2010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음악교육 관련 논문이 등재된 학회와 음악교육 논문을 수록한 대학부설연구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전체 음악교육 학회 및 대학부설연구소 전반의 동향을 분석한 것은 아니다.

둘째, 학술논문 분류에 있어서 논문이 두 개 이상의 주제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비중이 큰 쪽으로 분류하였다.

셋째, 분류를 통해 수집된 논문 중 서평과 기고문, 음반 평, 현장 연구물 및 자료, 음악이론 등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음악교육의 개념을 확인하고 음악교육연구와 음악교육연구의 당위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와 관련된 학술지와 선행연구 고찰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1. 음악교육

음악교육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는 보통교육으로써의 음악교육이고 둘째는 전문적인 음악인을 양성하기 위한 음악교육이다. 보통교육으로써의 음악교육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음악성과 창의성을 기르기 위한 것으로, 음악을 교육의 수단보다는 예술 자체로 인식하여 삶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문적인 음악인을 양성하기 위한 음악교육은 예술과 관련이 있는 학교와 대학 및 대학원 과정에서 행해지며,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음악의 진리를 찾는 데 힘쓰며 더 나아가 음악교사와 음악가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진 음악교육 연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음악교육학이 가지고 있는 구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음악교육학자들이 음악교육학 강의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8)9)에는 음악교육학의 연구 영역이 세부적으로 잘 나타나 있다. 두 저서는 음악교육학의 세부영역을 음악교육역사, 음악교육철학, 음악교육심리, 음악교육과정, 음악교수법, 음악교육평가, 음악교육

8) 민경훈 외(2013). **음악교육학총론 제2판**. 서울:학지사.

9) 권덕원·석문주·최은식·함희주(2014). **음악교육의 기초 제3판**. 서울:교육과학사

공학, 음악교육행정, 음악 수업 설계, 음악교사교육 등으로 제시한다.

음악교육역사에서는 서양 음악교육과 우리나라 음악교육의 역사를 보여주고 음악교육철학에서는 우리나라 음악교육 철학, 외국 음악교육 철학, 현대의 음악교육 철학을 보여준다. 음악교육심리에서는 음악심리 이론, 음악교육 심리이론, 신경생리, 음악치료에 대해 알아보고 음악교육과정에서는 우리나라 음악과 교육과정, 세계의 음악과 교육과정을 살펴본다. 음악교수법에서는 전통적 음악 교수학습방법, 새로운 동향의 음악교수-학습방법, 통합교육에 대해 언급한다. 또한 음악교육평가는 음악과 평가방법, 음악과 평가도구, 음악 영역별/학교급별 음악평가, 수행평가, 음악검사에 대해 알아보고 음악교육공학에서는 컴퓨터 활용 음악교육과 스마트교육에 대해 알아본다. 음악교육 행정에서는 음악행정, 음악장학 예비/현직 음악교사 기준, 음악교사 연수에 대해 알아본다. 음악교사 교육에서는 음악 교사 자질과 교사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해 제시하고 음악교육 연구에서는 연구의 동향과 연구유형을 알아보고 학교 외 음악교육에서는 영재교육, 문화예술교육, 사교육, 음악 산업에 대해 알아본다.¹⁰⁾

이처럼 다양한 영역의 음악교육학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음악교육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다양한 학문과 음악 교육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질 좋은 연구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음악교육 연구

연구는 완전히 새로운 지식을 창조해 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연구되어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자의 새로운 지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자만의 새로운 연구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

10) 최은식 외(2014). 전계서. p.27

라서 연구를 위해서는 그 연구 분야의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는 음악교육연구도 다양해짐에 따라 연구대상, 연구영역, 연구형태, 연구방법 등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발전에 맞추어서 현재 음악교육에서는 어떠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최근의 연구 논문 주제가 어떠한 경향을 띠고 있는지를 분석·고찰하는 것은 한국의 음악교육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¹¹⁾

음악교육 연구의 유형으로는 철학적 연구, 역사적 연구, 기술적 연구, 실험적 연구, 질적 연구가 있다. 철학적 연구는 일반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를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일로 반성적·비판적 사고를 통해 연구 문제의 본질과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다. 역사적 연구는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는 것 외에 학제적 접근을 활용하여 원인과 결과를 연계시키는 것이다. 역사적 연구의 종류로는 연대순 역사 비교 역사, 구술 역사, 양적 역사 등이 있다. 기술적 연구는 ‘무엇이’, ‘어떻게’라는 질문에 초점을 두고 연구대상이 되는 현상의 특징을 조사, 관찰, 분석하여 결과를 설명하는 연구이다. 실험적 연구는 두 개 이상의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연구로 사회과학적 연구방법이라고도 한다. 마지막으로 질적 연구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의 의미는 우리 인간에 의하여 부여되고 구성된다는 연구로 구성주의 교육 철학에 기초를 두고 있는 연구이다.¹²⁾

음악교육연구의 목적은 첫째, 음악교육 현상에 대하여 기술하는데 있다. 둘째, 밝혀진 현상(특징, 문제점 등)에 대하여 논리적·체계적으로 설명하는데 있다. 셋째, 음악교육에 관한 미래 현상을 예측하는데 있다. 넷째, 음악교육 현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통제하는데 있다. 학생들의 음악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사는 흥미로운 도입 활동을 개발하고 활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11) 정재은, 석문주(2014). “‘음악교육연구’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음악교육연구의 동향”. *음악교육연구*, Vol. 43, pp.165-188

12) 최은식 외(2014). *전계서*. p.75, p.91, p.107, p.139, p.165

중요하다. 이처럼 음악교육 연구의 결과는 음악교육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통제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¹³⁾

본 연구에서는 한국 음악교육계에서 행해지고 있는 논문들을 연구방법론에 따라 연구대상별, 연구영역별, 연구방법별로 분류함으로써, 현재 한국 음악교육연구의 현황과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대상이 된 논문들은 음악교육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학회 및 대학부설연구소에서 정기적으로 출간하고 있는 학술 논문이다. 그 중 7개의 학회 및 대학부설연구소를 대상으로 연구 방법론에 따른 음악교육연구를 유형별로 조사하여 분류하였다.

3. 음악교육연구의 당위성

음악교육은 항상 변화하고 그 변화에 따라 음악교육 현상을 연구하는 음악교육학 이론도 변화된다. 최근 들어 음악교육학을 중심으로 음악의 과학적 연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음악(교육)대학원과 교수들의 논문작성이 점차 늘어감에 따라 음악과 관련한 연구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음악교육의 활발한 연구를 통해 음악교육 현장에서 보다 양질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¹⁴⁾

음악교육연구는 첫째, 음악교육의 과정에 있어서 ‘연구’는 음악교육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준다. 둘째, 음악교육에 대한 합리적인 연구는 모든 구성원들로 하여금 문제와 해결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갖게 해주고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는 동기력을 제공해준다. 셋째, 연구는 학문의 발전 과정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넷째, 음악교육 연구의 결과는

13) 최은식 외(2014). 전계서. pp.11-12

14) 최진호(2011). 전계서. pp.205-206

음악교사에게 수업의 방향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준다.¹⁵⁾ 따라서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음악교육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음악교육 연구는 음악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과 개인의 음악교육 호기심에 관한 현명한 해결책을 마련해 준다. 그리고 다른 연구자들이나 교육자들, 교육과정 개발자들, 또는 음악과 관련한 여러 학문 분야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음악교육의 지식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음악교육 연구가 필요하다.

음악교육 연구는 음악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현상을 파악하여, 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음악교육에 관련한 이론에 대해 지식을 개발하는데 기여한다. 음악교육 연구를 통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더 나은 교육결과를 얻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으며 부정적인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통제나 처치를 가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통제된 연구결과는 실제 현장수업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음악적 문제의 해결점을 교사에게 제공하므로 현장에 대한 안목을 주어 교사는 미래에 야기될 수 있는 문제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것이다. 연구의 최종 목적은 연구결과의 현장 적용인 것이다.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누군가의 논문을 통해서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된다면 이론을 바탕으로 응용·적용하며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게 된다.¹⁶⁾

15) 최은식 외(2014). 상계서, pp.12-13

16) 김미숙(2001). “음악교육 연구에 대한 고찰”. 연세음악연구. 제8집. p.24.

4. 음악교육 관련 학술지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¹⁷⁾에 등재된 1998개의 학술지 내의 예술체육 분야 107개의 학술지 중 음악교육 관련 논문이 가장 많이 등재되어 있는 5개의 학회와 2개의 대학부설연구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학술지 목록은 <표Ⅱ-1>에 등재연도 순서로 제시하였고, 학술지를 발간하는 학회에 대한 소개도 <표Ⅱ-1>에 함께 제시하였다.

<표Ⅱ-1> 음악교육 관련 학술지 목록

	학술지명	학회 및 대학부설연구소	등재연도	ISSN
학회	음악교육 연구	한국음악교육학회	2006	1229-4179
	음악교육 공학	한국음악교육공학회	2011	1598-8252
	예술교육 연구	한국예술교육학회	2015	1738-8309
	국악교육 연구	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	2015	1976-3522
	국악교육	한국국악교육학회	2016	1225-0651
대학 부설 연구소	이화음악논집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2009	1229-7690
	음악이론포럼	연세대학교 음악연구소	2016	1598-6659

17) 한국연구재단 <http://www.nrf.re.kr>

1) 음악교육연구

한국음악교육학회¹⁸⁾는 1956년 한국음악교육연구회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음악교육 관련 분야에 재직 중인 교수, 교사, 강사, 학생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학회이다. 음악교육 분야 관련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및 학술세미나, 콜로키움 및 워크샵, 국내외관련 학회와 학술교류, 교사연수, 음악교육 사업 등을 통해 음악교육의 학문적 연구와 그 실천을 통해 한국 음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음악교육 학회는 1년에 4회 논문집을 발간하고 2016년 현재 「음악교육연구」 제 45집 제 1호, 제 2호, 제 3호가 발간되었다.

2) 음악교육공학

한국음악교육공학회¹⁹⁾는 2001년 창립 이사회를 시작으로 21세기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음악교육의 패러다임 확립과 교수-학습의 질적 양적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연구 및 활동을 한다. 또한, 회원 상호간에 기술 및 정보의 공유를 통하여 자신은 물론 차세대의 풍부한 음악적 정서 함양, 창의성 계발, 전인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창단되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음악교육의 분야에 대한 심층적 연구, 음악교육에 관한 정보 및 기술의 개발, 공유, 음악교사 연수 및 세미나 개최, 산학협동을 통한 학교음악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제반 활동, 국내·외의 정보통신기술 관련 음악 행사 유치, 주관 및 참여활동을 하고 있다.

음악교육방법 및 공학을 중심으로 음악교육, 음악학, 특수음악교육 등 음악과 교육의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음악교육공학」 학술지는 1년에 4회 논문집을 발간하고 현재 29호가 발간되었다.

18) 한국음악교육학회 <http://www.kmes.or.kr>

19) 한국음악교육공학회 <http://www.knet.kr>

3) 예술교육연구

한국예술교육학회²⁰⁾는 2002년 음악, 미술, 연극, 무용의 예술교과를 중학교
육과정으로 채택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의 예술교육정책에 대하여 논의 하는
모임에서 시작되었으며, 2003년 한국예술교육학회 창립총회 및 학술심포지움
의 개최를 시작으로 창단되었다.

예술교육에 대한 이론 정립과 다양한 연구영역 개발 등을 통해 학교예술 교
육, 생활 및 전문예술 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예술교육에
관한 학술활동 및 연구물 발간, 예술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국제학술단체
와의 유대강화 및 학술교류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술지인 「예술교육
연구」는 1년에 4회 논문집을 발간하고 2016년 현재 14집 3호가 발간되었다.

4) 국악교육연구

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²¹⁾는 국악교육에 참여하는 교원들의 질적 성장과 교육
활동을 돕고 바람직한 국악교육상을 정립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교육 현장과
의 연계를 중심으로 국악교육에 대한 연구 및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장을 마
련 하고자 2006년 창립 준비 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2007년 한국국악교육연
구학회 창립총회 및 기념 학술대회를 진행하였다.

국악교육을 위한 학술연구, 교수·학습자료 연구와 개발, 교원을 위한 국악교
육 연수, 발표회 및 강연회, 학술대회 개최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국악교
육연구」는 1년에 2회 논문집을 발간하고 2016년 현재 10집 2호를 발간하였
다.

20) 한국예술교육학회 <http://www.artsedu.co.kr>

21) 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 <http://www.sskme.org>

5) 국악교육

한국국악교육학회²²⁾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및 대학에 이르기까지 국악교육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구체적인 연구방안을 모색하며 실천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국악교육의 성장을 위해 1975년에 설립되었다.

국악교육 관련 분야에 재직 중인 학자들을 중심으로 연구하며, 1년에 2회 논문집을 발간하고 2016년 현재 「국악교육」 41집을 발간하였다.

6) 이화음악논집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²³⁾는 음악예술과 인간 생활환경의 상호관계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기구이다. 21세기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의 보다 나은 풍요로운 삶을 위한 통합적인 예술로서의 학문의 길’을 지향한다. 또한, 음악을 통하여 역사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며 한국의 음악환경 개선을 통해 질 높은 인간의 삶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1997년에 설립되었다.

음악대학의 교수진이 연구위원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학술연구사업, 다양한 형태의 연주회 개최 및 후원사업, 사회음악교육사업,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산학협동 및 국제협력사업, 출판물 간행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학술연구부, 공연연구부, 교육연구부 등의 부서를 두었다. 연구사업, 학술활동, 각종연주회 개최, 사회음악교육사업,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산학협동 및 국제 협력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이화음악논집」은 1년에 3회 논문집을 발간하고 20집 1호가 발간되었다.

22) 한국국악교육학회 <http://www.kmedu.or.kr>

23)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http://home.ewha.ac.kr/~musicie/>

7) 음악이론포럼

연세대학교 음악연구소²⁴⁾는 음악 이론과 실기 간의 균형을 추구하며 다양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함으로써 학문적 기반과, 창작과 연주와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1987년에 설립되었다.

주요 사업으로는 2016년 등재된 전문학술지 「음악이론포럼」 발간, 춘계 또는 추계 학술 심포지엄 개최, 공개강좌, 세미나, 특강, 해외석학 초청 강좌, 현대음악가와의 만남, 마스터클래스, 저술 및 번역 사업을 진행하며 타 학문과 통섭을 통해 다각적인 학제 간 연구를 추구하고 있다. 현재 전문학술지 「음악이론포럼」은 1년에 2회 발간하고 22-1호가 발간되었다.

24) 연세대학교 음악연구소 www.yonseimr.org

5. 선행연구 고찰

음악교육과 관련된 학위논문 및 학술논문은 여러 학자들을 통해 활발히 연구되어 지고 있다. 본 연구와 관련된 국내 음악교육 연구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논문을 분류하고 정리하였는지, 분석결과는 어떠한지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의 음악학술전문지인 「음악교육연구지(JRME) :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의 10년간 연구 경향을 분석한 김미숙²⁵⁾은 음악교육 연구자들에게 JRME에서 발표된 논문들의 연구 경향에 대한 올바르게 체계적인 정보를 주어 한국의 음악교육에 관한 논제의 선정과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JRME의 논문 연구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방법을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연구 영역 세 분야로 나누었다. 연구 방법별 분석-기술적, 역사적, 실험적, 철학적-에서는 기술적 연구가 49.6%의 비중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연구임을 밝혔고 연구 대상별 분석-유아, 초등, 중등, 대학, 일반, 교사, 특수, 기타-에서는 초등 연구가 2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 영역별 분석-교수·학습, 음악학습 심리, 교과교육원론, 교사교육, 교재/교구, 교육과정, 특수교육, 일반음악이론-에서는 교수·학습방법이 32.4%로 가장 많이 연구되었다고 하였다. 연구자의 제언으로는 한국의 음악교육학계에서의 연구 활동도 활발해지기를 바라고 논제 선정에 어려움을 느끼는 대학원 음악교육전공 학생들이나 효율적인 교수학습과정을 연구하는 현장교사들에게 유용한 문헌자료로서의 역할과 음악교육학계가 심혈을 기울여야 할 분야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국외의 음악교육 연구동향을 조사·분석하여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음악교육연구의 과제와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 석문주²⁶⁾는 연구대

25) 김미숙(2001). 전계서

26) 석문주(2004). 전계서

상으로 미국의 음악교육 전문학술지인 JRME(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CRME(Bulletion of the Council of Reserch in Music Education), Update(: Application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와 국제 학술지인 IJME(Interactional Journal of Music Education) 등 4개 학술지를 분석하여 연구동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분석을 위한 분류는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영역을 택하였는데 연구대상은 유아, 초등학생, 중등학생, 대학생, 교사, 음악전문가, 음악교육학자, 특수아, 성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연구방법은 역사적 연구, 철학적 연구, 실험적 연구, 서술적 연구, 질적연구, 문헌연구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연구영역은 음악교육역사, 음악교육철학, 음악교육심리학, 음악과 교육과정, 음악과 교수-학습방법, 음악교육공학, 음악교육평가, 음악교사교육, 음악과 특수교육, 음악교육연구로 나누어 범주화 하였다. 분석결과 연령층과 학교급별에 따른 연구대상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다양하고 체계적인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영역이 다양하고 모두에게 유용하고 가치 있는 음악교육연구를 중요하다고 하였다.

한국음악교육학회의 「음악교육연구」와 한국 국악교육학회의 「국악교육」을 연구대상으로 한 원영실²⁷⁾은 논문을 1차와 2차로 나누어 분류하고 1차 분류에는 교육학의 하위영역-교육과정, 교육행정, 교육철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평가 및 측정, 교육공학, 교육사-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2차 분류는 교육학의 하위영역 중 가장 높은 연구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연구를 선정하여 다시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재분류 하였다. 「국악과 교육」은 5개의 영역-국악 교육과정 및 내용, 국악교육심리, 국악교육철학, 국악교육사, 국악교육의 실제 현황연구-로 분류하였다. 「음악교육연구」의 분석 결과 음악교육심리 영역이 48.23%로 가장 높았고 그 중 음악교수·학습과 관련된 연구가 70.73%의 비중을 차지했다. 「국악교육」의 분석 결과 국악교육과정영역이 40%로 가장

27) 원영실(2006). 전계서

높았다. 연구자의 제언으로는 초등뿐만 아니라 중등이나 고등교육(대학)으로 연구의 범위와 대상을 확장시켜야 하며 음악교육학의 하위전공 영역별에 따른 전문 연구자들의 양성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끝으로 음악교육 연구자들이 자신의 전공영역을 분명히 하고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해 나갈 때 과거의 음악교육 연구동향과는 다른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음악교육에 대한 연구 동향 및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문헌분석을 한 박기범²⁸⁾은 분석기간을 1980년~2010년 상반기까지 약 30년으로 선정하였고 「학술진흥재단」이 선정한 음악교육 분야 등재 후보지 이상을 기준으로 발간된 학술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로는 저자 관련 분석결과, 주로 1인 저자의 연구가 대다수이고 저자의 소속기관은 교대소속 연구자의 논문 비중이 가장 높았다. 연구비 지원 분석결과, 전반기에는 8%, 후반기에는 23%의 비율이 나타났다. 인용 분석 결과는 음악교육연구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이론적이고 순수학문적인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감기 분석 결과는 반감기는 13년 정도로 나타났고 다른 학문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을 나타냈다. 연구방법론 분석 결과, 이론적인 논문은 67%, 실험적 문헌은 33%로 분석되었고 연구 주제별 분석 결과는 전반기에는 교수·학습개발이 48%로 후반기에는 이론적 고찰이 42% 가장 높은 것을 보여주었다. 연구자의 제언은 음악교육연구는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듯 시류적인 성격의 학문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사회변화를 직시하고 학문의 국제화를 통해 좀 더 체계적인 연구 분야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음악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음악연구의 방법론적 과제를 제시한 최진호²⁹⁾는 과학적 연구방법론에 근거하여 음악과 관련한 연구방법에 대한 유형을 분석하고 현재 한국의 음악교육에 관한 연구들의 현황을 알기 위해 음악교육 공학회에서 발간하는 음악교육공학 논문을 대상으로 미국 음악교육 연구유형과 비교

28) 박기범(2011). 전계서

29) 최진호(2011). 전계서

/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음악학술지 JRME에 출간된 논문들을 분석해 연구유형을 밝혀놓은 Yarbrough(1996)의 연구결과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의 경우 경험중심적인 양적연구(실험연구)의 비중이 50.0%로 가장 높았고 한국은 문헌연구방식이 46.4%로 가장 높았다. 따라서 미국은 양적연구(실험연구)를 선호하고 한국은 문헌연구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의 제언으로는 한국의 음악교육연구에서 양적연구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현장중심의 양적연구가 더 많이 나와서 한국의 음악교육이 발전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국내 다문화 음악교육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국내에서 2000년-2009년 동안 다문화 음악교육을 주제로 하여 발표된 연구(총 113편 : 학술지 논문 40편, 석·박사 학위논문 66편, 단행본 7편)를 대상으로 한 정유진³⁰⁾은 연구 분류 기준으로는 교육영역(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과 연구방법 영역(문헌연구, 양적연구, 질적연구)과 연구주제 영역(관련이론, 실태분석, 방안제시, 기타)의 세 가지를 들었다. 분석결과 교육영역에서는 중등영역의 연구가 48편(40.3%)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연구방법 영역에서는 문헌연구가 98편(85.9%)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연구주제 영역에서는 한국과 외국의 교과서를 분석한 '실태분석' 연구가 57편(45.9%)으로 가장 많았다고 제시하였다.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류기준과 연구방법은 제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성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국내 음악교육의 최근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2006년에서 2012년까지의 음악교육 관련 문헌을 수집한 이정아³¹⁾는 연구대상을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학술지와 등재 후보로 되어 있는 18개의 음악, 예술, 국악 관련 학술지에서 음악교육에 관련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류기준은 연구대상, 연구영역,

30) 정유진(2010). **다문화 음악교육의 국내 연구동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31) 이정아(2013). **국내 학술지의 음악교육연구 동향 분석 : 2006년-2012년 연구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연구방법으로 세웠다. 연구대상은 크게 사람과 문헌으로 나누고 연구영역은 음악교육역사, 음악교육철학, 음악교육심리, 음악교육사회, 음악교육과정, 음악교육평가, 음악교육공학, 음악 교수-학습방법, 음악교육행정, 음악교사교육, 특수교육, 평생교육, 방과 후 특기적성, 음악교육연구, 기타로 분류하였다. 연구방법은 크게 양적연구, 질적연구, 개발연구로 나누어서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연구대상에서는 교수매체와 초등교육관련 연구가 많았고, 연구영역은 음악 교수-학습방법 영역이 가장 많았고 연구방법에서는 문헌 연구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제시하였다. 연구자의 제언으로는 연구방법의 다양화는 다양한 연구주제를 생산하며 학문의 지식체계를 발전시키기 때문에 음악교육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예비음악교육연구자들은 연구방법론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과 활용으로 전문성을 길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연구가 중요하다고 한 김윤정³²⁾의 연구대상은 1990년부터 2012년 2월까지의 한국교원대학교 석·박사학위 논문 626편으로 하였다. 분류기준은 연도별, 학교급별, 음악교육학 영역별, 음악과 교육과정 영역별, 연구방법별, 연구 목적에 따른 단계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도별에서는 1990년~2000년까지 일반대학원 논문은 209편, 2001년~2012. 2 일반대학원 논문은 220편, 교육대학원 논문은 197편이며, 이 중에서 박사학위 논문은 9편이라고 제시하였다. 음악교육학 영역별에서는 수업설계가 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음악과 교육과정 영역별은 전체 영역이 18%로 가장 높았다. 연구방법별은 문헌연구가 58%로 가장 높고 음악교육 연구의 목적에 따라 이론, 계획, 체계화, 현장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연구자의 제언은 본 연구가 기초 자료로 사용되기를 바라고 음악교육의 효과를 측정하고 수치화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평가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음악교육학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32) 김윤정(2013). 음악교육전공 석·박사 학위 논문의 연구동향 분석 : 한국교원대학교를 중심으로 (1990~2012. 2).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음악교육과 관련한 논문을 전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있지만 「한국연구재단」³³⁾에 등재되어 있는 음악교육 관련 학회의 학술논문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음악교육 관련 논문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음악교육을 대영역 중심으로만 연구하고 세부적인 영역까지 연구한 논문의 수가 적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되어있는 학회 및 대학부설연구소 중 음악교육 관련 연구를 수록하고 있는 학술지를 선정하였다. 선정기준은 음악교육 관련 학술논문이 전체 학술논문의 50% 이상인 학회와 1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학부설연구소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논문은 음악교과 교육의 저서를 통해 분석기준을 보다 세분화하여 음악교육영역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음악교육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33) 한국연구재단 <http://www.nrf.re.kr>

Ⅲ. 연구방법

본 장에서는 연구대상과 연구절차, 연구기간, 연구 분석을 위한 분류 기준을 제시한다.

1. 연구대상

국내 음악교육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대상은 2010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내 학회 및 대학부설연구소에 등재된 음악교육연구에 해당하는 논문이다. 해당 학회 및 학술지 명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학술지 선정

본 연구는 현재 한국연구재단³⁴⁾에 등재되어있는 학회 및 대학부설연구소 중 음악교육 관련 논문이 가장 많이 등재되어 있는 5개의 학회와 2개의 대학부설연구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2010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등재된 전체 학술논문 1,135개 중 음악교육 관련 학술논문으로 725개가 선정되었고 그 중 서평, 기고문, 음반평, 현장자료, 음악이론 등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세부적인 선정 결과는 <표 Ⅲ-1>에 제시하였다.

34) 한국연구재단 <http://www.nrf.re.kr>

<표 III-1> 세부적인 학술지 선정 결과

학술지 명	전체 논문 수	음악교육 논문 수
음악교육 연구	236	236
음악교육 공학	220	160
예술교육 연구	279	138
국악교육	110	55
국악교육 연구	156	107
이화음악논집	82	20
음악이론포럼	52	9

2. 연구기간

본 연구는 2015년 11월부터 선행연구 고찰 및 문헌연구를 시작으로 2016년 11월까지 <표 III-2>의 순서와 같이 진행하였다.

<표 III-2> 연구내용 및 연구기간

순서	연구내용	연구기간
1	선행연구 고찰 및 문헌연구	2015년 11월~2016년 11월
2	연구대상 선정	2015년 12월~2016년 2월
3	이론적 배경 연구	2016년 3월~2016년 5월
4	논문 분류기준 설정 및 분석	2016년 3월~2016년 11월
7	연구결과 작성	2016년 8월~2016년 11월

3. 연구절차

국내 음악교육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졌다.

첫째, 음악교육 연구에 관련된 국내의 학회나 학술단체에서 간행하는 전문 학술지를 선정한 후, 각 학술지에서 음악교육에 관련된 논문을 수집하였다. 논문 수집 방법은 학회사이트의 논문 검색을 이용하거나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둘째, 수집된 논문을 분석하기 위해 검색한 연구대상의 학술지명을 엑셀파일로 저장하고 그 중 음악교육연구와 관련된 연구만 선정하여 입력하였다.

셋째, 선정된 논문을 연구대상, 연구영역, 연구방법으로 분류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 항목을 선정하여 엑셀파일에 저장된 연구를 분류하였다.

4. 연구 분석을 위한 분류기준

국내 음악교육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한 분류는 음악교과 교육의 대표적 저서인 「음악교육총론」³⁵⁾과 석문주³⁶⁾와 김미숙³⁷⁾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연구대상, 연구영역, 연구방법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따른 세부 내용을 제시하였다.

35) 민경훈 외(2013). 전계서

36) 석문주(2004). 전계서

37) 김미숙(2001). 전계서

1) 연구대상별 분류기준

연구대상별 분류기준은 석문주³⁸⁾와 김미숙³⁹⁾의 연구대상 분류기준을 참조하였다. 다음의 <표 III-3>는 연구대상별 분류기준을 사람과 문헌으로 나누고,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시 세부영역과 세부내용으로 분류하였다.

<표 III-3> 연구대상별 분류

연구 대상	세부영역	세부내용	
사람	유아	영·유아	
	초등학생	초등학교 1학년~6학년	
	중학생	중학교 1,2,3학년	
	고등학생	일반고 1,2,3학년/예술고 1,2,3학년	
	초·중등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대학원생	
	특수아	영재아	영재 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
		장애아	학습 장애아
	교사	예비교사	사범대, 교육대학원 학생
		현직교사	유치원, 초,중,고 음악교사/강사
	교사와 학생		음악교사와 학생
	전문가	음악전문가	음대 교수, 음악가
		교육전문가	교육대, 사범대, 교육대학원 교수, 교육학자
	성인	성인	20대 이상
	학생과 학부모		학생과 학생의 부모

38) 석문주(2004). 전계서

39) 김미숙(2001). 전계서

문헌	교육과정	유치원	유치원 교육과정
		초등교육	초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중등교육	음악과 교육과정(7~10학년), 중등공통교육과정
		고등선택	고등학교 음악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선택교육과정
		초중등	선 학제 음악과 교육과정
		예술고	예술고등학교 교육과정
		대학	대학 교육과정
	교과서	초등	초등학교 음악교과서
		중등	중학교 음악교과서
		고등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초중등	초·중등 음악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학교 교사용 지도서	
기타	음악교육연구	연구 동향, 연구 유형	
	음악교육학이론	교육철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교육연구 등	
	교과서 외 교재	학교에서 교육하는 교과서 외 모든 교재	
	교수매체	교수법, 교수자료, ICT, 학습모형, 학습이론	
	평가도구	지필평가, 학업성취평가, 검정고시, 임용고시, 검사도구	
	교육프로그램/ 프로그램 개발	방과 후 프로그램, 통합 프로그램, 교육 실습 프로그램, 인성교육 프로그램, 영재교육 프로그램, 저소득층 프로그램 등	
	교육정책	음악교육정책	
	그 외	학원교육, 공연, 북한, 악기, 세계음악, 대중음악, 문화예술교육, 영화, 다문화교육 등	

<표 III-3>는 사람 중심으로 한 연구대상의 세부영역을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초·중등학생, 대학생, 특수아, 교사, 전문가, 성인으로 분류하였다. 유아는 영·유아를 포함해 초등학교 취학 이전의 영·유아를 모두 포함하였다. 초등학생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중학생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고등학생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생으로 나누어 예술계 고등학생까지 포함하였고 초·중등 학생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모두 포함하였다. 대학생은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모두 포함하였다. 특수아는 하위영역으로 영재아와 장애아로 분류하였는데 영재아는 영재 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장애아는 학습 장애아를 대상으로 분류하였다. 교사는 하위영역으로 예비교사와 현직교사로 분류하였다. 예비교사는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생을 포함하였고 현직교사는 현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음악 교사와 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교사와 학생은 음악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전문가는 하위영역으로 음악전문가와 교육전문가로 분류하였는데 음악전문가는 현재 음악대학 교수와 음악가를 대상으로 하였고 교육전문가는 현재 사범대학교 교수와 교육대학원 교수와 교육학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인은 하위영역으로 성인은 2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문헌을 중심으로 한 연구대상의 세부영역은 교육과정, 교과서, 기타로 분류하였다. 교육과정은 하위영역으로 유치원,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선택, 초중등, 예술고, 특수교육, 대학으로 분류하였다. 유치원은 유치원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하고 초등교육은 초등학교 음악교육 과정을 대상으로 하며 중등교육은 음악과 교육과정(7~10학년)과 중등공통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하였다. 고등선택은 고등학교 음악과 선택중심 교육과정과 선택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초중등은 전 학제 음악과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하고 예술고는 예술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특수교육은 특수교육 음악과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대학은 대학의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하였다. 교과서는 하위영역으로 초등, 중등, 고등, 초중등, 교사용 지도서로 분류하였는데 초등은 초등학교 교과서, 중등은 중학교 교과서, 고등은 고등학교 교과서, 초중등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적인 교과서를 대상으로 분류하였다. 교사용 지도서는 학교 교육을 위한 교사용 지도서를 대상으로 하였다.

기타는 하위영역으로 음악교육연구, 음악교육학이론, 교과서 외 교재, 교수매체, 평가도구, 교육프로그램/프로그램 개발, 교육정책, 그 외로 분류하였다. 음악교육연구는 음악교육을 연구동향과 유형을 대상으로 하였고, 음악교육학이론은 교육철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연구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교과서 외 교재는 학교에서 교육하는 교과서 외 모든 교재를 대상으로 하고, 교수매체는 교수법, 교수자료, ICT, 학습모형, 학습이론을 대상으로 하였다. 평가도구는 지필평가, 학업성취평가, 검정고시, 임용고시, 검사 도구를 대상으로 하고, 교육프로그램은 방과 후 프로그램, 통합 프로그램, 교육 실습 프로그램, 인성교육 프로그램, 영재교육 프로그램, 저소득층 프로그램 등과 프로그램 개발을 대상으로 하였다. 교육정책은 음악교육 정책을 대상으로 하고 그 밖에 학원교육, 공연, 북한, 악기, 세계음악, 대중음악, 문화예술교육, 영화, 다문화 교육 등을 첨가하였다.

2) 연구영역별 분류기준

연구영역별 분류기준은 음악교과 교육의 저서를 참조하여 분류하였다. 다음의 <표 III-4>는 음악교육학을 14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세부영역과 세부내용으로 더 자세히 분류하였다.

<표 III-4> 연구영역별 분류

연구영역	세부영역	세부내용
음악교육역사		우리나라 음악교육 역사, 외국 음악교육 역사
음악교육철학		우리나라 음악교육 철학, 외국 음악교육 철학, 현대 음악교육 철학
음악교육심리	교육 심리학	음악인지발달, 음악학습과 발달 등
	음악 심리학	음악성, 음악적성 및 성취, 창의성
	신경생리	
음악교육사회학	다문화 교육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육
	사회적 접근	인간과 사회에 기여, 시대적·사회적·문화적, 사회에서의 음악적 현상
음악교육과정		우리나라 음악과 교육과정, 세계의 음악과 교육과정(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음악교수-학습방법	교수법	전통적 음악교수학습방법
	가창·기악·창작·감상·생활화 영역	각 영역 음악활동 교육 및 지도 방법
	실용음악	대중음악 학습 관련

	통합교육	통합교과 수업 방법 관련
	음악 수업 설계	수업 지도안, 수업 모형/프로그램 개발, 음악 수업 실태 및 개선방안
음악교육평가		음악과 평가방법, 음악과 평가도구, 음악 영역별/학교급별 음악평가, 수행평가, 음악검사, 검정고시
음악교육공학		컴퓨터 활용 음악교육, 스마트 교육
음악교육행정		음악행정, 음악장학, 예비/현직 음악교사 기준, 음악교사 연수
음악교사교육		음악교사 자질, 교사교육 프로그램, 예비교사/현직교사, 임용고시
음악교육연구		연구의 동향, 연구 유형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		
학교 외 음악교육		영재교육, 장애교육, 문화예술교육, 사교육, 음악 산업, 방과 후 특기적성, 평생교육
기타		개설현황, 교과서 외 교재, 운영 및 발전 방안, 자유학기제

<표Ⅲ-4>에서는 14개의 연구영역을 제시하였는데 14개의 연구영역으로 음악교육역사, 음악교육철학, 음악교육심리, 음악교육사회학, 음악교육과정, 음악교수-학습방법, 음악교육평가, 음악교육공학, 음악교육행정, 음악교사교육, 음악교육연구, 방과 후 특기적성, 학교 외 음악교육, 기타로 분류하였다.

음악교육역사는 서양음악교육과 우리나라교육의 역사적 변천을 통해 음악교육사의 사건과 인물을 고찰한 것이다. 음악교육철학은 우리나라 음악교육철학

과 서양 음악교육 철학에서 자연주의, 실재주의, 이상주의에 대해서 다루며 현대 음악교육 철학은 심미적 음악교육철학, 실천주의 음악교육철학, 경험중심 음악교육철학에 대해 제시한다. 음악교육심리는 교육심리학과 음악심리학으로 분류되는데 교육심리학은 행동주의, 인지주의, 인본주의, 신경생물학적 접근, 구성주의·다중지능을 포함하고 음악 심리학은 음악지각·인지와 음악능력발달, 음악 지식과 창의성 등에 대해 포함하고 있다.

음악교육사회학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육을 하는 다문화 교육과 인간과 사회에 기여하고 사회에서의 음악적 현상을 파악하는 사회적 접근을 포함한다. 음악교육과정은 우리나라와 서양의 유치원, 초, 중, 고, 대학의 교육과정과 교육제도와 그에 따른 교과서를 포함하였다. 음악교수-학습방법은 하위영역으로 교수법, 가창·기악·창작·감상·생활화 영역, 실용음악, 통합교육, 음악 수업 설계로 나누었다. 교수법은 달크로즈, 코다이, 오르프, 고든, MMCP, 국악 교수법 등을 포함하고 가창·기악·창작·감상·생활화 영역은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 영역으로 영역별 지도 방안을 포함하였다. 실용음악은 대중음악 학습관련한 연구를 포함하고 마지막으로 통합교육과 음악수업 설계를 포함하였다.

음악교육평가는 하위영역으로 음악과 평가방법, 음악과 평가도구, 음악영역별/학교급별 음악평가, 수행평가, 음악검사, 김정고시로 나누었다. 음악교육공학은 컴퓨터 활용 음악교육과 스마트 교육을 포함하고 음악교육행정은 음악행정, 음악장학, 예비/현직 음악교사 기준, 음악교사 연수를 포함하였다. 음악교사교육은 현직교사와 예비교사의 자질과 교사교육 프로그램과 임용고시 포함하고 음악교육연구는 음악교육의 동향과 연구 유형에 대해 영역을 나누었고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도 영역으로 첨가하였다. 학교 외 음악교육으로 영재교육과 장애아교육, 문화예술 교육, 사교육, 음악 산업, 평생교육을 포함하였고 기타로 개설현황, 교과서 외 교재, 운영 및 발전 방안, 자유학기제 등으로 나누었다.

3) 연구방법별 분류기준

연구방법별 분류기준은 최진호(2011)⁴⁰⁾의 과학 연구방법론에 따른 음악교육 연구의 유형별 분류를 참조하여 5개의 분류기준으로 나누고 세부영역과 세부영역으로 분류하여 <표Ⅲ-5>에 제시하였다.

<표Ⅲ-5> 연구방법별 분류

연구방법	세부영역	세부내용
양적연구	조사연구	설문지 조사, 문헌연구
	실험연구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
	상관연구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연구
질적연구		연구대상을 직접 관찰한 사례연구
양적·질적 병행 연구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모두 사용
개발연구	지도안, 프로그램	교수 학습모형 개발
	평가도구, 검사도구	
기타	제언, 음악분석	

40) 최진호(2011). 전계서. pp14-17

연구방법은 양적연구, 질적연구, 양적·질적 병행 연구, 개발연구, 기타로 분류하였다. 양적연구는 하위영역으로 조사연구, 실험연구, 상관연구로 구분하였는데 조사연구는 설문지 조사와 문헌연구를 포함하였고 실험연구는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 상관연구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연구를 포함하였다. 질적연구는 연구대상을 직접 관찰한 사례연구를 포함하며 양적·질적 병행연구는 두 연구 모두를 포함하였다. 개발영역은 하위영역으로 지도안,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도구와 검사도구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교수 학습 모형 개발을 포함하고 마지막으로 기타는 그 외 제언과 음악분석을 포함하였다.

IV. 연구 분석 및 결과

본 연구에서 분석한 2010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5개의 학회와 2개의 대학부설연구소에 실린 전체 논문 수는 1,135편이고 그 중 음악교육 관련 학술논문은 725편으로 집계되었다.

<표 IV-1> 음악교육 관련 학술논문 집계

	학술지 명	학회 명	전체 논문 수	음악교육 논문 수	음악교육 논문비율 (%)
1	음악교육 연구	한국음악교육학회	236	236	100.00
2	음악교육 공학	한국음악교육공학회	220	160	72.73
3	예술교육 연구	한국예술교육학회	279	138	49.46
4	국악교육	한국국악교육학회	110	55	50.00
5	국악교육 연구	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	156	107	68.59
6	이화음악논집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82	20	24.39
7	음악이론포럼	연세대학교 음악연구소	52	9	17.31
총 계			1,135	725	63.88

집계된 음악교육 관련 학술논문을 연도별, 연구대상별, 연구영역별, 연구방법별로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분류와 분석결과의 특징을 토대로 최근 국내 음악교육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1. 연도별 논문 수

국내 학술지에서 발간된 음악교육 관련 학술논문 725편을 연도별 논문 수로 정리하여 <표Ⅳ-2>에 제시하였다. 단, 2016년은 9월까지 등재된 논문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Ⅳ-2> 연도별 논문 수

발행 연도	학회 명	논문 수	백분율(%)
2010	한국음악교육학회	19	2.62
	한국음악교육공학회	22	3.03
	한국예술교육학회	40	5.52
	한국국악교육학회	5	0.69
	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	21	2.90
	이화여자대학교음악연구소	2	0.28
	연세대 학교음악연구소	4	0.55
	계	113	15.59
2011	한국음악교육학회	34	4.69
	한국음악교육공학회	19	2.62
	한국예술교육학회	16	2.21
	한국국악교육학회	10	1.38
	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	12	1.66
	이화여자대학교음악연구소	4	0.55
	연세대 학교음악연구소	0	0.00
	계	95	13.10

2012	한국음악교육학회	38	5.24
	한국음악교육공학회	17	2.34
	한국예술교육학회	17	2.34
	한국국악교육학회	10	1.38
	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	15	2.07
	이화여자대학교음악연구소	4	0.55
	연세대학교음악연구소	0	0.00
	계	101	13.93
2013	한국음악교육학회	42	5.79
	한국음악교육공학회	12	1.66
	한국예술교육학회	8	1.10
	한국국악교육학회	7	0.97
	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	8	1.10
	이화여자대학교음악연구소	1	0.14
	연세대학교음악연구소	0	0.00
	계	78	10.76
2014	한국음악교육학회	40	5.52
	한국음악교육공학회	37	5.10
	한국예술교육학회	9	1.24
	한국국악교육학회	14	1.93
	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	24	3.31
	이화여자대학교음악연구소	4	0.55
	연세대학교음악연구소	1	0.14
	계	129	17.79

2015	한국음악교육학회	45	6.21
	한국음악교육공학회	32	4.41
	한국예술교육학회	26	3.59
	한국국악교육학회	7	0.97
	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	9	1.24
	이화여자대학교음악연구소	4	0.55
	연세대학교음악연구소	0	0.00
	계	123	16.97
2016	한국음악교육학회	18	2.48
	한국음악교육공학회	21	2.90
	한국예술교육학회	22	3.03
	한국국악교육학회	2	0.28
	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	18	2.48
	이화여자대학교음악연구소	1	0.14
	연세대학교음악연구소	4	0.55
	계	86	11.86
총 계		725	100.00

연도별 논문 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10년 음악교육 논문 수는 총 113편(15.59%)이며 그 중 한국예술교육학회가 40편(5.5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화여자대학교음악연구소가 2편(0.28%)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2011년 음악교육 논문 수는 총 95편(13.10%)이며 그 중 한국음악교육학회가 34편(4.6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연세대학교음악연구소가 0편(0.00%)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2012년 음악교육 논문 수는 총 101편(13.93%)이며 그 중 한국음악교육학회가 38편(5.2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연세대학교음악연구소가 0편(0.00%)으로 가장 낮은 비율

을 보였다. 2013년 음악교육 논문 수는 총78편(10.76%)이며 그 중 한국음악교육학회가 42편(5.7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연세대학교음악연구소가 0편(0.00%)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2014년 음악교육 논문 수는 총129편(17.79%)이며 그 중 한국음악교육학회가 40편(5.5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연세대학교음악연구소가 1편(0.14%)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2015년 음악교육 논문 수는 총123편(16.97%)이며 그 중 한국음악교육학회가 45편(6.2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연세대학교음악연구소가 0편(0.00%)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2016년 음악교육 논문 수는 총86편(11.86%)이며 그 중 한국예술교육학회가 22편(3.0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화여자대학교음악연구소가 1편(0.14%)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2. 연구대상 빈도 분석

가. 연구대상별 빈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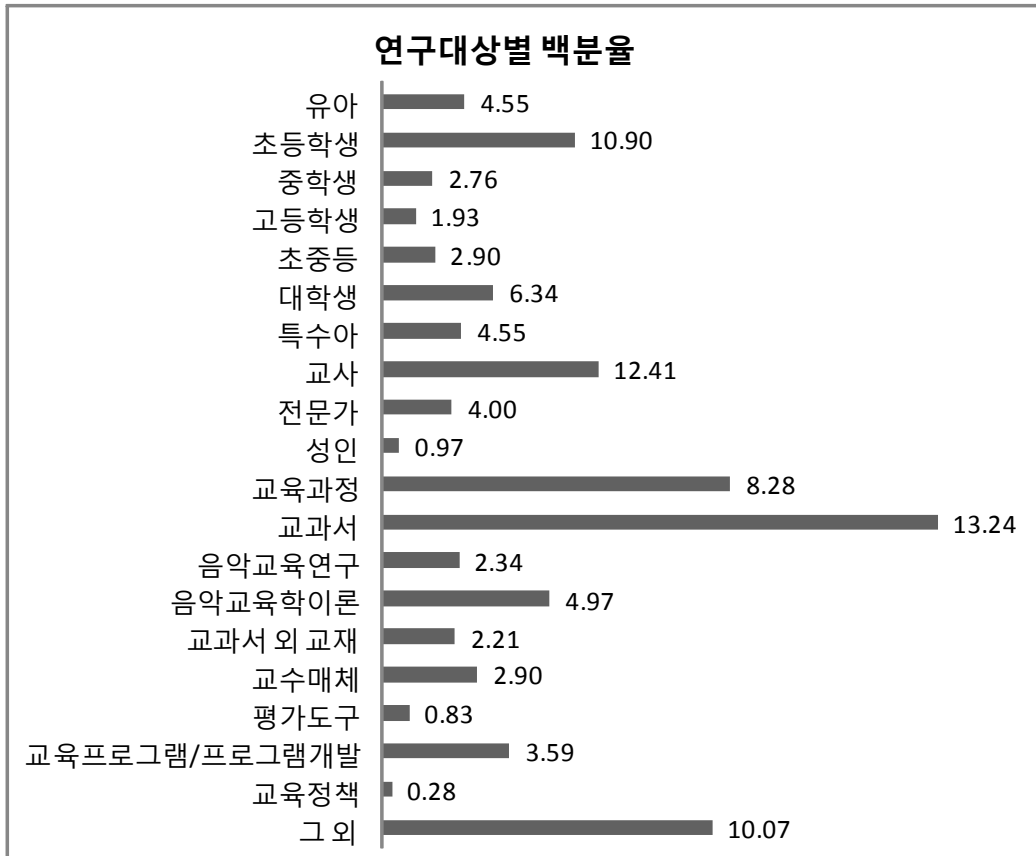
음악교육 관련 연구논문 725편을 연구대상별로 분류하여 논문 수와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세부적인 분석 결과는 <표Ⅳ-3>에 제시하였다.

<표Ⅳ-3> 연구대상별 빈도 분석

연구대상		논문 수(편)		백분율(%)		
사람	유아	33		4.55		
	초등학생	79		10.90		
	중학생	20		2.76		
	고등학생	14		1.93		
	초중등	21		2.90		
	대학생	46		6.34		
	특수아	영재아	17	33	2.34	4.55
		장애아	16		2.21	
	교사	에비교사	30	90	4.14	12.41
		현직교사	56		7.72	
	교사와 학생		4		0.55	
	전문가	음악전문가	17	29	2.34	4.00
		교육전문가	12		1.66	
	성인	성인	4	7	0.55	0.97
		학생과 학부모	3		0.41	
	계		372		51.31	

문헌	교육 과정	유치원	3	60	0.41	8.28
		초등교육	5		0.69	
		중등교육	3		0.41	
		고등선택	1		0.14	
		초중등	39		5.38	
		예술고	1		0.14	
		대학	8		1.10	
	교과서	초등	32	96	4.41	13.24
		중등	33		4.55	
		초중등	18		2.48	
		고등	6		0.83	
		교사용 지도서	7		0.97	
	계			156		21.52
	기타	음악교육연구		17	2.34	
		음악교육학이론		36	4.97	
교과서 외 교재			16	2.21		
교수매체			21	2.90		
평가도구			6	0.83		
교육프로그램/ 프로그램 개발			26	3.59		
교육정책			2	0.28		
그 외			73	10.07		
계			197	27.17		
총계			725	100.00		

<그래프 IV-1> 연구대상별 백분율



연구대상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사람 대상 연구에서 교사가 90편 (12.4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다음으로 초등학생이 79편(10.90%)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은 46편(6.34%)으로, 유아는 33편(4.55%)로 나타났고 특수아는 33편(4.55%)으로, 전문가는 29편(4.00%)로, 초중등은 21편(2.90%)로 나타났으며, 중학생은 20편(2.76%)로, 고등학생은 14편(1.93%)로, 성인은 7편(0.97%)으로 성인이 전체 사람 대상 연구에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다.

특수아 33편(4.55%)의 하위영역에서 영재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17편 (2.34%)으로 나타났고 장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16편(2.21%)으로 영재

아와 장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비슷한 비중을 보였다.

교사 90편(12.41%)의 하위영역에서는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30편(4.14%)으로 나타났고 현직교사는 56편(7.72%)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4편(0.55%)으로 나타났다.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 29편(4.00%)의 하위영역에서는 음악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17편(2.34%)으로 나타났고 교육전문가는 12편(1.66%)으로 나타나 음악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문헌 대상 연구에서 교과서가 96편(13.2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다음으로 교육과정이 60편(8.28%)으로 나타났다. 교과서의 하위영역에서 중등이 33편(4.55%)으로 나타났고 초등이 32편(4.41%), 초·중등이 18편(2.48%), 교사용 지도서가 7편(0.97%), 고등이 6편(0.83%)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의 하위영역에서는 초·중등이 39편(5.38%), 대학이 8편(1.10%), 초등교육 5편(0.69%), 유치원, 중등교육 3편(0.41%), 고등선택, 예술고 1편(0.14%)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그 외 영역이 73편(10.0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다음으로 음악교육학이론이 36편(4.97%)으로 나타났다. 교육프로그램/프로그램 개발 26편(3.59%), 교수매체 21편(2.90%), 음악교육연구 17편(2.34%), 교과서 외 교재 16편(2.21%), 평가도구 6편(0.83%), 교육정책 2편(0.28%)으로 나타났다.

나. 연구대상 연도별 빈도 분석

음악교육 관련 연구논문 725편의 연구대상을 연도별로 분류하여 논문 수와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세부적인 분석 결과는 <표IV-4>에 제시하였다.

<표IV-4> 연구대상 연도별 빈도 분석

연구대상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전체%
유아	6	5	7	3	3	7	2	33
	5.31	5.26	6.93	3.85	2.33	5.69	2.33	4.55
초등학생	10	9	15	14	12	13	6	79
	8.85	9.47	14.85	17.95	9.3	10.57	6.98	10.9
중학생	3	3	1	5	2	2	4	20
	2.65	3.16	0.99	6.41	1.55	1.63	4.65	2.76
초중등	3	7	3	0	2	5	1	21
	2.65	7.37	2.97	0	1.55	4.07	1.16	1.93
고등학생	1	1	2	2	3	0	5	14
	0.88	1.05	1.98	2.56	2.33	0	5.81	2.9
대학생	5	9	3	7	9	8	5	46
	4.42	9.47	2.97	8.97	6.98	6.5	5.81	6.34
특수아	4	5	5	5	6	5	3	33
	3.54	5.26	4.95	6.41	4.65	4.07	3.49	4.55
교사	10	12	16	10	17	15	10	90
	8.85	12.63	15.84	12.82	13.18	12.2	11.63	12.41
전문가	2	3	1	5	4	8	6	29
	1.77	3.16	0.99	6.41	3.1	6.5	6.98	4
성인	1	1	1	0	1	2	1	7
	0.88	1.05	0.99	0	0.78	1.63	1.16	0.97

교육과정	12	8	5	4	11	10	10	60
	10.62	8.42	4.95	5.13	8.53	8.13	11.63	8.28
교과서	9	13	12	7	23	22	10	96
	7.96	13.68	11.88	8.97	17.83	17.89	11.63	13.24
음악교육 연구	0	2	1	2	6	3	3	17
	0	2.11	0.99	2.56	4.65	2.44	3.49	2.34
음악교육 학이론	10	2	9	4	2	5	4	36
	8.85	2.11	8.91	5.13	1.55	4.07	4.65	4.97
교과서 외 교재	2	1	4	1	3	3	2	16
	1.77	1.05	3.96	1.28	2.33	2.44	2.33	2.21
교수매체	1	2	2	2	6	5	3	21
	0.88	2.11	1.98	2.56	4.65	4.07	3.49	2.9
평가도구	2	1	1	0	1	1	0	6
	1.77	1.05	0.99	0	0.78	0.81	0	0.83
교육프로 그램/ 프로그램 개발	8	3	3	2	4	2	4	26
	7.08	3.16	2.97	2.56	3.1	1.63	4.65	3.59
교육정책	0	0	1	0	1	0	0	2
	0	0	0.99	0	0.78	0	0	0.28
그 외	24	8	9	5	13	7	7	73
	21.24	8.42	8.91	6.41	10.08	5.69	8.14	10.07
계	113	95	101	78	129	123	86	725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연구대상 연도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사람 대상 연구에서 교사가 90편(12.4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그 중 2012년이 16편(15.84%)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그 다음으로 초등학생이 79편(10.9%)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그 중 2013년도가 14편(17.95%)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대학생이 46편(6.3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중 2011년이 9편(9.47%)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문헌 대상 연구에서는 교과서가 96편(13.2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그 중 2015년이 22편(17.89%)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그 다음으로 그 외 영역이 73편(10.07%)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그 중 2010년도가 24편(21.24%)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교육과정이 60편(8.2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중 2016년이 10편(11.63%)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3. 연구영역 빈도 분석

가. 연구영역별 빈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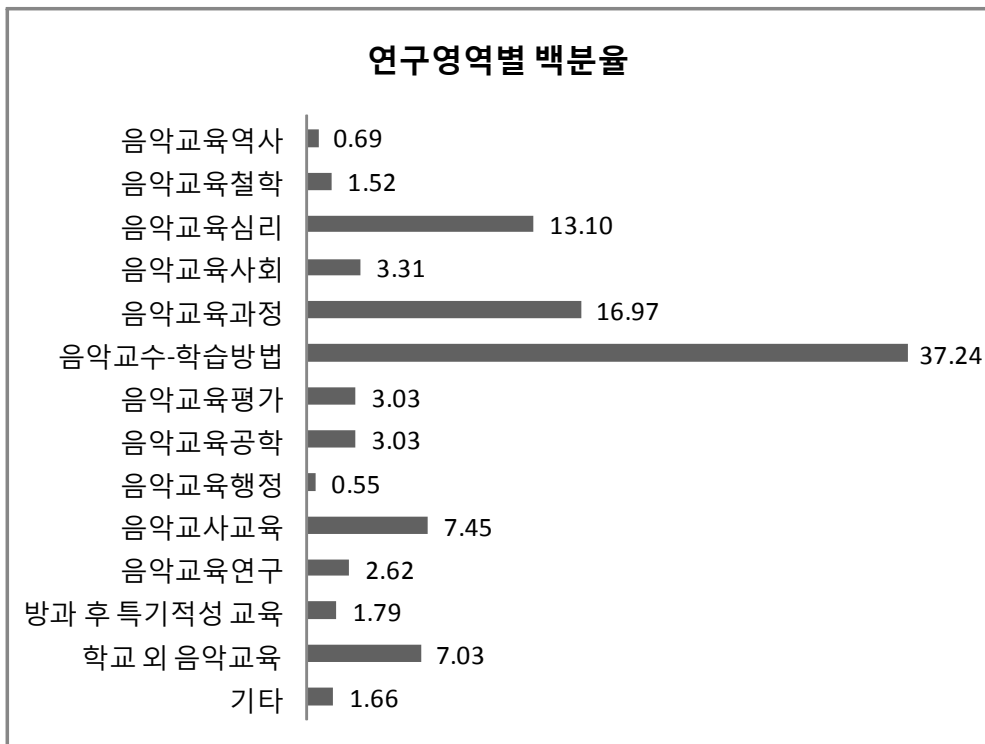
음악교육 관련 연구논문 725편을 연구영역별로 분류하여 논문 수와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세부적인 분석 결과는 <표IV-5>에 제시하였다.

<표IV-5> 연구영역별 빈도 분석

연구영역	세부영역	논문 수(편)		백분율(%)	
	음악교육역사	5		0.69	
	음악교육철학	11		1.52	
음악교육심리	교육 심리학	64	95	8.83	13.10
	음악 심리학	27		3.72	
	신경생리	4		0.55	
음악교육사회학	다문화 교육	21	24	2.90	3.31
	사회적 접근	3		0.41	
	음악교육과정	123		16.97	
음악교수-학습방법	교수법	12	270	1.66	37.24
	가창.기악.창작.감상.생활화 영역	127		17.52	
	실용음악	16		2.21	
	통합교육	37		5.10	
	음악 수업 설계	78		10.76	
	음악교육평가	22		3.03	

음악교육공학	22	3.03
음악교육행정	4	0.55
음악교사교육	54	7.45
음악교육연구	19	2.62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	13	1.79
학교 외 음악교육	51	7.03
기타	12	1.66
총계	725	100.00

<그래프 IV-2> 연구영역별 백분율



연구영역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음악교수-학습방법이 270편(37.2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다음으로 교육과정이 123편(16.97%)으로, 음악교육심리가 95편(13.10%)으로, 음악교사교육 54편(7.45%)으로 나타났고 학교 외 음악교육이 51편(7.03%)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의 영역은 5% 이하로 나타났고, 음악교육행정 관련 연구가 4편(0.55%)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다.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음악교수-학습방법의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가창·기악·창작·감상·생활화 관련 연구가 127편(17.52%)으로 가장 많았고 음악수업 설계가 78편(10.76%)으로, 통합교육이 37편(5.10%)으로, 실용음악이 16편(2.21%)으로 나타났으며 교수법이 12편(1.66%)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다.

나. 연구영역 연도별 빈도 분석

음악교육 관련 연구논문 725편의 연구영역을 연도별로 분류하여 논문 수와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세부적인 분석 결과는 <표IV-6>에 제시하였다.

<표IV-6> 연구영역 연도별 빈도 분석

연구영역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전체%
음악교육	0	1	0	0	2	2	0	5
역사	0	1.05	0	0	1.55	1.63	0	0.69
음악교육	0	2	0	5	1	1	2	11
철학	0	2.11	0	6.41	0.78	0.81	2.33	1.52
음악교육	11	12	17	14	20	11	10	95
심리	9.73	12.63	16.83	17.95	15.5	8.94	11.63	13.1
음악교육	4	6	3	0	6	4	1	24
사회학	3.54	6.32	2.97	0	4.65	3.25	1.16	3.31
음악교육	18	13	14	7	29	28	14	123
과정	15.93	13.68	13.86	8.97	22.48	22.76	16.28	16.97
음악교수	46	37	45	32	44	39	27	270
-학습방법	40.71	38.95	44.55	41.03	34.11	31.71	31.4	37.24
음악교육	11	2	2	1	1	1	4	22
평가	9.73	2.11	1.98	1.28	0.78	0.81	4.65	3.03
음악교육	2	4	4	0	3	4	5	22
공학	1.77	4.21	3.96	0	2.33	3.25	5.81	3.03
음악교육	1	0	1	0	1	1	0	4
행정	0.88	0	0.99	0	0.78	0.81	0	0.55
음악교사	4	5	7	5	12	13	8	54
교육	3.54	5.26	6.93	6.41	9.3	10.57	9.3	7.45

음악교육	1	3	1	1	3	7	3	19
연구	0.88	3.16	0.99	1.28	2.33	5.69	3.49	2.62
방과 후	3	2	4	2	1	1	0	13
특기적성	2.65	2.11	3.96	2.56	0.78	0.81	0	1.79
교육								
학교 외	10	6	1	9	6	10	9	51
음악교육	8.85	6.32	0.99	11.54	4.65	8.13	10.47	7.03
기타	2	2	2	2	0	1	3	12
	1.77	2.11	1.98	2.56	0	0.81	3.49	1.66
계	113	95	101	78	129	123	86	725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연구영역 연도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음악교수-학습방법이 270편(37.2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그 중 2012년이 45편(44.55%)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그 다음으로 음악교육과정이 123편(16.97%)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그 중 2015년도가 28편(22.76%)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음악교육심리가 95편(13.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중 2013년이 14편(17.95%)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4. 연구방법 빈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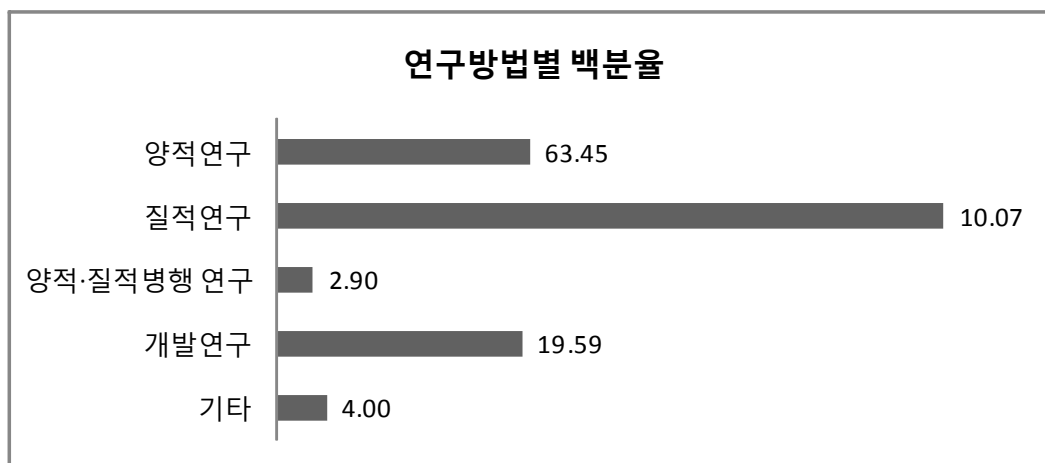
가. 연구방법별 빈도 분석

음악교육 관련 연구논문 725편을 연구방법별로 분류하여 논문 수와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세부적인 분석 결과는 아래 <표IV-7>에 제시하였다.

<표 IV-7> 연구방법별 빈도 분석

연구방법	세부영역	논문 수(편)		백분율(%)	
양적연구	조사연구	413	460	56.97	63.45
	실험연구	24		3.31	
	상관연구	23		3.17	
질적연구	질적연구		73		10.07
양적·질적 병행 연구			21		2.90
개발연구	지도안, 프로그램	139	142	19.17	19.59
	평가도구	3		0.41	
기타	제언, 음악분석		29		4.00
총계			725		100.00

<그래프 IV-3> 연구방법별 백분율



연구방법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양적연구가 460편(63.45%)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연구방법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개발연구가 142편(19.59%)으로, 질적연구가 73편(10.07%)으로, 기타가 29편(4.00%)으로, 양적·질적 병행연구가 21편(2.90%) 순으로 나타났다.

양적연구의 하위영역으로 조사연구, 실험연구, 상관연구가 있는데 조사연구는 413편(56.9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실험연구 24편(3.31%), 상관연구 23편(3.17%)이 있었다. 개발연구의 하위영역으로는 지도안/프로그램과 평가도구가 있었는데 지도안/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139편(19.17%), 평가도구는 3편(0.41%)으로 나타났다.

나. 연구방법 연도별 빈도 분석

음악교육 관련 연구논문 725편의 연구방법을 연도별로 분류하여 논문 수와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세부적인 분석 결과는 <표IV-8>에 제시하였다.

<표IV-8> 연구방법 연도별 빈도 분석

연구방법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전체%
양적연구	67	58	58	40	93	89	55	460
	59.29	61.05	57.43	51.28	72.09	72.36	63.95	63.45
질적연구	8	8	13	13	13	13	5	73
	7.08	8.42	12.87	16.67	10.08	10.57	5.81	10.07
양적·질적 병행 연구	1	2	1	6	3	4	4	21
	0.88	2.11	0.99	7.69	2.33	3.25	4.65	2.90
개발연구	31	24	20	18	17	16	16	142
	27.43	25.26	19.80	23.08	13.18	13.01	18.60	19.59
기타	6	3	9	1	3	1	6	29
	5.31	3.16	8.91	1.28	2.33	0.81	6.98	4.00
계	113	95	101	78	129	123	86	725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연구방법 연도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양적연구가 460편(63.4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그 중 2015년이 89편(72.36%)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그 다음으로 개발연구가 142편(19.59%)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그 중 2010년도가 31편(27.43%)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질적연구가 73편(10.0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중 2013년이 13편(16.67%)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5. 결과 요약

2010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내 학술지 음악교육연구 동향을 살펴본 결과, 음악교육 관련 연구 논문의 수는 725편이었다. 수집된 음악교육 관련 연구 논문을 연구대상, 연구영역, 연구방법별로 분류하고 분석하여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725편의 연구논문을 사람과 문헌 대상으로 나누고 20개의 세부영역으로 분류하였다. 20개의 세부영역에서 사람 대상은 교사가 90편(12.4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다음으로 초등학생 79편(10.90%), 대학생 46편(6.34%), 유아는 33편(4.55%) 순으로 나타났다. 성인은 7편(0.97%)으로 성인이 전체 사람 대상 연구에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다.

문헌 대상은 교과서가 96편(13.2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다음으로 교육과정이 60편(8.28%)의 비중을 보였다. 기타에서는 그 외가 73편(10.0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교육정책이 2편(0.28%)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다.

나. 연구영역

연구영역은 725편의 연구논문을 14개의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14개의 영역 중 음악교수-학습방법이 270편(37.2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다음으로 교육과정이 123편(16.97%), 음악교육심리가 95편(13.10%), 음악교사교육 54편(7.45%)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의 영역은 5% 이하로 나타났고, 음악교육행정 관련 연구가 4편(0.55%)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다.

다.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725편의 연구논문을 5개의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5개의 영역 중 양적연구가 460편(63.45%)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연구방법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개발연구가 142편(19.59%)으로, 질적연구가 73편(10.07%), 기타가 29편(4.00%) 순으로 나타났고 양적·질적 병행연구가 21편(2.90%)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다. 양적연구의 조사연구가 413편(56.9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개발연구에는 지도안/프로그램과 평가도구가 있었는데 지도안/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139편(19.17%)으로 높게 나타났다.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학술지 음악교육 연구의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음악교육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는 데 있다. 연구대상은 한국연구재단⁴¹⁾에 등재되어있는 학회 및 대학부설연구소의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중 음악교육 관련 학술논문 가장 많이 등재되어 있는 5개의 학회와 2개의 대학부설연구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토대로 2010년 2월부터 2016년 9월까지의 음악교육 관련 연구 논문 725편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우리나라 음악교육연구의 동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연구대상에서는 음악교육의 연구 대상이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교과서와 교사관련 연구와 초등교육관련 연구가 많았다. 이는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 대한 연구와 초등교육에 관련된 연구, 특히 교사 중심의 연구가 많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성인과 교육정책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적었다.

둘째, 연구영역에서는 교수-학습방법 영역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그 중 전통적인 교수법(달크로즈, 코다이, 오르프, 고든, MMCP)에 대한 비중이 낮고 음악 활동과 음악 수업 설계와 통합교육의 비중이 높은 것을 보아 다양한 수업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음악 외 여러 분야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발전적인 경향을 볼 수 있었다. 그에 비해 음악교육행정 연구의 비중이 낮게 나타났는데 양질의 교육을 위해 음악교육행정 관련 연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셋째, 연구방법에서는 조사연구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비록 적은 비중이지만 양적·질적 병행 연구가 이루어짐에 따라 단순히 문헌연구로 끝나는

41) 한국연구재단 <http://www.nrf.re.kr>

것이 아니라 직접 관찰 조사 하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연구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 연구방법에 대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양한 연구 방법은 새로운 연구주제와 지식을 발전시켜 음악교육 연구의 질을 높인다. 이에 연구가들과 학생들은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연구방법론에 대한 깊은 지식을 길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덕원·석문주·최은식·함희주(2014). **음악교육의 기초 제3판**. 서울:교육과학사
- 민경훈 외(2013). **음악교육학총론 제2판**. 서울:학지사.
- 최은식 외(2014). **음악교육 연구방법**. 서울:교육과학사.
- 김미숙(2001). “JRME(1991년~2000년) 논문 경향에 대한 소고”. **음악교육연구**, 20(1), 1-19.
- 김미숙(2001). “음악교육 연구에 대한 고찰”. **연세음악연구**, 제8집, 23-52
- 김운정(2013). **음악교육전공 석·박사 학위 논문의 연구동향 분석 : 한국교원대학교를 중심으로(1990~2012. 2)**.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박기범(2011). “한국 음악교육 연구의 분석 및 개관: 1980년 이후 국내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예술교육연구**, 9(2), 57-76
- 석문주(2004). “음악교육의 최근 연구동향을 통한 우리나라 음악교육연구의 새로운 접근”. **음악교육연구**, 27, 91-128
- 원영실(2006). “한국 음악교육학계의 최근 연구동향 분석”. **국악과 교육**, 24, 7-30
- 이정아(2013). **국내 학술지의 음악교육연구 동향 분석 : 2006년-2012년 연구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재은, 석문주(2014). “‘음악교육연구’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음악교육연구의 동향”. **음악교육연구**, 43(1), 165-188
- 정유진(2010). **다문화 음악교육의 국내 연구동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진호(2011). “연구방법론을 통해 본 음악교육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음악교육공학**, 12, 205-220

웹사이트

한국연구재단 <http://www.nrf.re.kr>

학술연구정보서비스 www.riss.kr

한국음악교육학회 <http://www.kmes.or.kr>

한국음악교육공학회 <http://www.kmet.kr>

한국예술교육학회 <http://www.artsedu.co.kr>

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 <http://www.sskme.org>

한국국악교육학회 <http://www.kmedu.or.kr>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http://home.ewha.ac.kr/~musicie/>

연세대학교 음악연구소 www.yonseimr.org

ABSTRACT

Analysis on Research Tendency of Music Education in Domestic Academic Journals

- From 2010 to 2016 -

Park, Min Kyung

Department of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journal aims to analyze the trend of music education in Korea by analyzing the music education of the music education institute and the College of Education in January, 2010, from January 2010 to September 2016. In order to investigate the academic documents collected investigate the academic documents collected in five academic institutes and two universities, it collected a total of 732 related journals. According to the study by the literature, the study analyzed 20 subjects, 14 research areas, and divided the research method into 5 categories.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tudies by research subjects showed that the study focused on teacher and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 lowest study related

studies were the least likely. An increase in adult proportions requires an increase in research aimed at adults. The study found that the study focused o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courses, the lowest level of study related studies related to high and secondary education courses. An increase in research on the high school curriculum is required. Other areas had a lot of research related studies and music education theories, and the study of education policy was the least likely. An increase in education policy related to education policy is required for rational selection of education, contents, methods, organization and management.

Second, in the field of research, researchers were able to see the interest of researchers on how much teaching-learning music is in the greatest proportion of the teaching-learning music population. In comparison, the distribution of music education is very poor, and the increase in research on music education is needed to improve the music education environment.

Third, studies show that the proportion of studies in literature has the highest proportion of studies. Through the study of quantitative research and qualitative research, there was a study that allowed us to examine and conclude the theory rather than merely theoretical research, not just theoretical research. This shows that the nation's music education methods are being diversified.